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와 투표행위: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및 상태에 반응하는가?

김형아*·김나영**·김상현***

〈目 次〉

- I. 머리말
- II. 재정상태와 투표행위
- III. 실증분석
- IV. 결론

〈요 약〉

정부의 재정상태가 주민들의 투표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대립된다.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함으로써 투표에서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방만한 재정운영이 오히려 득표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대립되는 견해에 해당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투표행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를 사용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과 현직단체장의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이들 사이에는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장 보다는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장이 더 인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치단체장들이 다음번 선거를 의식하여 방만하고 느슨한 재정운영을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주제어: 재정성과, 재정상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단체장의 득표율】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hakim99@hanmail.net).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forever8392@snu.ac.k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sanghkim@snu.ac.kr).

논문접수일(2008.3.4), 수정일(2008.9.9), 게재확정일(2008.12.15)

I. 머리말

지난 1995년 우리나라는 새로운 지방행정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바로 지방자치시대가 부활하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전에도 지방자치가 운영된 적이 있지만,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의 최우선적 목표에 밀려 지방자치제는 고사되었다. 그 후 민주주의적 요청과 정치적 논란 속에서 1991년 지방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며, 1995년 자치단체장까지 직접선출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방자치제는 지방행정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지방행정에 대한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다른 행정부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관심과 의사가 지방단체의 집행부에 관철되어 지방정부 운영에 반영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의문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직접민주제를 택하지 않고 대의기구와 집행부를 주민들이 선출하는 간접민주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서 주민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선거, 즉 투표일 것이다. 투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단체장을 선출한다면, 주민들의 의사가 행정 및 재정운영에 반영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이 지역의 재정상태나 재정운영에 따라 단체장을 선출하는데 다른 선호를 보인다면, 이는 재정성고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고에 따라 지역주민의 투표선호가 변화하는지를 실증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과 지방선거에 관한 논문은 많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지방선거 전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및 예산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집중되어 있다(이재원, 2001; 박노욱, 2004; 박기백·김현아, 2005).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의 연구방향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이 지역주민들의 투표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히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외국에서는 국내 연구경향과는 다르게 정치학, 경제학 분야에서 지역경제나 지방재정성고가 선거에 영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Happy, 1992; Lowry, et al., 1998; Brender, 2003). 이들은 각각 캐나다, 미국, 이스라엘의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의 재정상태가 시장선거나 의원선거결과에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이

나 영국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현직 선출직 단체장의 재선에 재정수입의 변화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inflation)이나 실업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ppy, 1992). Brender(2003)는 1989년, 1993년 그리고 1998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세 번의 선거를 분석하면서, 1998년의 경우만 선출직 단체장의 재정성고가 주민의 투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민들이 지방자치제를 이해하고 선거에 임하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나 재정성고에 따라 다른 투표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재정상태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출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 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에 재출마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재정상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야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Brender(2003)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특성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음으로써 누락변수 편향(omitted variable bias)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개인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기존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부채와 같은 매우 단순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부채는 특정 자치단체의 전체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므로 매우 다양한 지표가 사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상태 및 운영성고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999년 이래로 매년 평가되고 있는 지방재정평가 종합점수(이하 재정성과점수)를 사용한다. 넷째, 기존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의 대상이 되는 선거연도의 바로 전 선거결과가 통제변수로 사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직전 선거결과를 통제변수로 포함시킴으로써 누락변수 편향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절에서는 재정상태와 투표행위에 대해서 서술하고, III절에서는 재정성고가 주민들의 투표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재정상태와 투표행위

1. 정부의 재정상태와 투표행위

Grove(1980)는 정부의 재정상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상태를 가장 좁게 해석하는 최협의설에 따르면, 정부가 30일 혹은 60일 이내에 어음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인 현금지불능력(cash solvency)라고 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예산기간 내에 지불의무를 충족시키고 적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충분한 세입을 확보하는 능력인 예산상의 지불능력(budgetary solvency)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정부의 재정상태를 광의로 해석하는 견해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 예산의 지불의무 외에 특정연도에만 나타나는 채무부담 등의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지불능력(budgetary solvency)을 일컫는다. 이들 정의와는 달리, 최광의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지방정부가 시민이 원하는 일정수준의 복지에 필요한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인 서비스수준 지불능력(service-level solvency)을 정부의 재정상태로 본다.

특히 기존에 연구된 주민들의 투표행태가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변한다는 논문에서는 이러한 재정상태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본 연구주제와 유사한 연구가 발표·출판된 것이 아직 없어, 국외연구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기존 국외연구들은, 재정상태를 크게 지역의 경제적 상태에 관한 것들과 재정운영에 관한 요인들로 나누고 있다. 지역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인플레이션률(rate of inflation), 실업률,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¹⁾ 등이 있고 재정운영에 관한 요인으로는 1인당 직접세 변화율(rate of change in per personal direct taxes)²⁾이 대표적으로 꼽힌다(Happy, 1992). 또한, 지역의 부채 변화율(debt change), 지역의 경상수지(current balance), 지역주민의 수입(residents' income), 평균 임금(average salary) 등이 지역의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재정운영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변수로는 지역 학생들의 성과(student performance)³⁾, 공공부분의 인건비, 조세징수 노력(tax collection effort)⁴⁾, 선거가 있는 해의 경기(election-year economics), 개발

1) 이때는 명목적 실질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2) 이때에도 명목적 실질조세를 모두 포함한다.

3) A. Brender의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12학년의 대학입학 결과는 지역교육제도의 성과지표로 사용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대학입학여부 등의 교육성과를 보고 거주지역의 교육제도를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Brender, 2003).

4) 조세징수노력 지표는 면세 및 감세 그리고 지체된 조세 비율로 계량화되었다.

활동의 크기로서 정부허가의 증가, 개발지출 등이 있다.

국내문헌에서도 지방재정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나, 그런 지표들이 지방재정상태를 담아내기에는 우리나라의 지방-중앙정부간 재정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국내 문헌의 재정상태 지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현시점에서 자치단체간의 재정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를 찾다가 지난 1999년부터 지방재정분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결과를 지역의 재정상태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한다.

한편, 이런 지방의 재정상태에 따라 주민들의 투표선호가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승범·이환범(2006)의 연구에서 단체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치단체의 특성으로서 재정지표인 ‘재정자립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외국문헌에서도 지역 재정상태를 단체장의 재정성과(fiscal performance)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러한 재정성과에 대해서 투표자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실증결과를 많이 보이고 있다. 심지어 과세(taxation)와 같은 구체적인 재정정책에 따라 주민들이 투표대상자에게 다른 선호를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 주민들의 선호가 변하는 이유는 단체장이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가 변하게 되고, 그런 변화는 주민들의 경제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주민들이 다음번 선거에서 다른 선호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투표행태에 대해,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단체장이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된다는 실증결과(Brender, 2003)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난다(Lowry, 1998). 또한 재정상태의 지표에 따라, 예를 들면 조세부과,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과 같은 지표에 따라 주민선호가 음 혹은 양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Happy, 1992).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선거가 실시 된지 이제 10여년이 지났다. 반면 연방주의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 또는 캐나다⁵⁾와 같은 국가들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지역중심의 행정운영과 더불어 지방선거를 해왔다. 역사적 경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방선거 실시 횟수에서조차 큰 차이가 있는 두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즉, 폴뿌리 민주주의의 경험이 일천한 대부분의 지방 유권자들에게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민주주의 의식이 축적된 나라들의 유권자와 같은 투표행태를 기대하는 것은

5) 재정성과나 상태(fiscal performance or economic performance)가 선거(voting)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시행된 것들이 많다. 그리고 각 나라의 연구결과 재정성과나 상태가 선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재정성과나 재정상태가 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단체장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투표하기보다는 중앙당의 정치적인 지원과 유세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성향을 보여 왔다. 지방선거의 경우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시·군·구 의원을 한번에 뽑게 되는 복잡한 제도이므로 유권자가 후보자들을 합리적으로 분석한 후 투표대상을 결정하기 보다는 후보자를 후원하는 중앙당의 정책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후보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보다는 정보제공의 편의를 위해 정당별로 후보자들을 나열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갖게 되는 선거 정보는 양에 비해서 질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해 볼 때, 유권자들이 얼마나 재정상태를 생각하면서 투표에 임할지는 미지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와는 달리, 재정상태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재정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 하여도 재정상태는 유권자인 주민들이 지역경제생활을 하면서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선거경험이 늘수록 투표시에 어떤 요인보다도 먼저 고려될 수 있는 변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선제로 뽑힌 단체장의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사정이 좋아졌다고 느낀다면, 당연히 다음번 선거에서 현직 단체장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주민들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는 실증적 연구의 대상이다. 즉, 이론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투표를 통하여 반응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만약 반응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도 본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2. 지방재정분석제도

본격적인 실증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방재정분석제도가 얼마나 지방재정상태를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단체장의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자치부의 요청으로 재정지표의 종합화 방법을 개발하여 재정평가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1999년도부터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모형으로 지방재정종합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재정상태와 운영 실태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등의 제고를 도모하는 재정관리제도이다(임성일, 2006).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하게끔 지도하고, 주민들에게는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자치단체와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고 있다.

지방재정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는 평가지표는 지난 2005년 대대적인 수정이 이뤄진 후 세입구조, 세출관리,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투명성, 국가정책이행의 6가지 큰 지표아래 세부변수를 두어 지방재정 전반적인 내용이 점수화하도록 만들어 졌다. 특히 계량지표의 경우 표준점수(Z-Score)와 등급제 산정방식으로 표준화시켜 자치단체별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부정적 의미의 지표는 등급을 거꾸로 부여함으로써 모든 지표의 방향을 일치시켰다. 또한 재정 투명성 및 국가정책이행의 비계량지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내에서 실시된 행위 및 법안, 정책실행 수를 지표화 하였다. 따라서 재정분석점수가 높은 지역은 세입구조가 건전하고, 세출·재정·채무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며, 재정투명성이 보장되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잘 이행한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절대적으로 재정분석점수가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분명히 내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자치단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용이하게 점수화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세부분석지표는 다음 <표1>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1> 재정분석지표의 변화과정(1999~2006 현재)

1999년도 분석지표(총 1,000점)		2000년도 분석지표(총 1,000점)		현행 분석지표(총 1,000점)	
자 주 성 (300)	① 재정자립도(200점) 지방세+세외수입	자 주 성	① 재정자립도 (종전과 동일)	세 입 구 조	1. 지방세수안정도
	일반회계세입결산액		②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입액		2. 지방세징수율
	② 1인당 지방세수력(100점) 지방세징수액		기준재정수요액		3. 지방세징수율증감율
인 구 수		4. 지방세체납징수율			
효 율	③ 투자비비율(200점) 사업비총액	생 산	③ 재정계획운영비율 최종사업예산액		5. 지방세과오납비율
	세출결산액		지방재정계획의사업비		6. 지방세수예측도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

성 (300)	④ 가용재원율(100점) 자체사업비+예비비 일반회계세출결산액	성	④ 세입예산반영비율 세입예산액	세 출 관 리	11. 세외수입과오납비율
			세입결산액-전년도이월액		12. 경상경비비율
안 정 성 (300)	⑤ 지방채상환비율(200점) 최근4년간 평균 지방채무상환액 최근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안 정 성	⑥ 경상수지비율 경상경비 일반재원결산액	재 정 관 리	13. 인건비비율
	⑥ 1인당 채무부담액(100점) 지방채무현재액 인 구 수		⑦ 세입·세출총당비율 세출소요액 세입결산액-조상충용액		14. 행사·축제 경비비율
노 력 도 (100)	⑦ 자체수입징수율(100점) 자체수입징수액 자체수입징수결정액	노 력 성	⑧ 지방채상환비율 (종전과 동일)	채 무 관 리	15. 민간이전경비비율
			⑨ 자체수입증감율 당해연도 자체수입결산액 전년도 자체수입결산액		16. 투자비비율
			⑩ 경상경비증감율 당해연도 경상경비결산액 전년도 경상경비결산액	국 가 정 책 이 행	17. 연말지출비율
					18.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재 정 투 명 성	19.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20. 추경예산편성비율
				국 가 정 책 이 행	21. 세입예산반영비율
					22. 순세계잉여금비율
				국 가 정 책 이 행	23. 지방채무상환비율
					24. 지방채무잔액지수
				국 가 정 책 이 행	25. 재정정보공시의 적정성
					26.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국 가 정 책 이 행	27. 사업별예산제도의 도입·정착노력
					28.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정착노력
				국 가 정 책 이 행	29. 재산세탄력세율 적용정도
					30. 사회복지예산증감율

III. 실증분석

1. 모형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에 반응을 하게 된다면, 선거 제도는 자치단체장의 재정운영·상태를 평가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재정운영을 잘못하여 지역경기가 악화되거나 자치단체의 부채가 늘어나게 될 경우, 자치단

체장은 다음번 선거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아래 2004년 재정분석결과에 따라 그 당시 현직 단체장이 2006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실제로 주민들이 지역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반응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2006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이다. 2006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중 현직단체장의 득표율을 사용하고자 한다. 현직단체장의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보고자 하는 재정분석점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기타 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정하였다. 먼저, 재정성과를 나타내주는 지방재정분석 종합점수(이하 재정점수라 한다)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때 재정점수는 2004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을 평가하여 2005년 발표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요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재정종합점수에 반영된 평가지표는 <표 1>에 자세히 나타나 있으며, 각 지표를 점수화하기 위해 등급제 점수산정방식과 표준점수(Z-score)를 사용함으로써, 지표의 방향성을 통일해 준 자료이다.

다른 통제변수들로는 자치단체장의 득표율과 재선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정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단체장의 정당공천 여부가 득표율이나 재선여부에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도 중요하겠으나, 이러한 요인은 지방정치의 지역주의적 편향을 고려해 봤을 때 지역이라는 변수를 두어 따로 통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정당공천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현직 단체장의 지난 선거 득표율을 독립변수로 포함시켜 현직단체장의 기존의 지지도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지난 선거득표율은 단체장에 대한 개인적 특성 중 누락된 요인을 통제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 지역의 경쟁자의 수와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변수로는 경력(정치인, 공무원, 기업인), 학력, 그리고 나이를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변수(충청, 전라, 경상)로서 자치단체장의 득표율 및 재선성공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요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런 통제변수의 설정은 최승범·이환범(2006)의 연구모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의 기대 부호를 살펴보면, 먼저 재정성과 변수로 선택된 재정점수는 양의 부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점수가 좋은 지역의 현직단체장은 지방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

문에 다음 선거에서도 높은 득표율을 보이거나 당선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예상도 가능해진다. 박노욱(2004)의 연구에 의하면 지방선거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지방세대비 세외수입의 증가, 외부수입 중 이전재원의 의존 정도가 평균적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들이 임명직 관료들과 다르게 행동하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자체재원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재정의 전체적 건전성보다는 의존재원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많이 확보한 단체장일수록 주민의 인기에 부합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전환된 후 지역 주민 서비스지출이나 축제경비를 늘려 주민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자치단체장이 많다는 보도는 흔히 접할 수 있다.⁶⁾

한편, 이와 같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있다. Brender(2003)는 1998년 선거결과와 재정성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성과가 좋지 않은 자치단체의 시장이 그 다음 선거에 당선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정책(moderate policy)이 재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재정성과 변수의 기대부호는 예단하기 어려우며, 실증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대상이다.

또한, 단체장의 정당공천여부도 양의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한 득표는 중앙정당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당(national party)의 선호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결과가 존재한다(Dunleavy, 1980; Boyne, 1996). 따라서 정당공천여부는 단체장의 득표율이나 재선선공 여부에 양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단체장의 이전선거 득표율은 주민들의 단체장에 대한 지지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양의 방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지지도가 높은 단체장이 다음번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수는 음의 부호가 예상되는데, 후보자의 수는 경쟁률을 뜻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득표율과 재정성공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인 단체장의 나이와 학력 변수는 나이가 많을수록, 경력 중에서는 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단체장의 득표율과 재선성공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독립변수의 기대부호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2>과 같다.

6) 서울신문(2006년 10월 2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경비가 전년도보다 25% 늘어난 5914억이라고 보도했다.

〈표 2〉 변수의 정의 및 기대부호

변수명		정의	기대부호	자료출처	
종속변수	선거결과	vote	기초자치단체장선거 득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상태	fiscore	지방재정분석종합점수	?	지방분석단체별보고서
독립변수		prevote	현직단체장의 지난 선거 득표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ge	단체장의 나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omp	경쟁 후보자의 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party	정당공천더미변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arr	경력더미변수 (공무원-단체장포함,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du	학력더미변수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local	지역더미변수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수도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상에서 살펴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바탕으로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득표율인 경우의 회귀모형을 설정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vote} = & \beta_0 + \beta_1 \text{fiscore} + \beta_2 \text{prevote} + \beta_3 \text{age} + \beta_4 \text{comp} \\
 & + \beta_5 \text{party} + \beta_6 \text{carr} + \beta_7 \text{edu} + \beta_8 \text{local} + \epsilon
 \end{aligned}
 \tag{1}$$

위의 식 (1)에서 종속변수인 *vote*는 현직단체장의 득표율을 의미하고, *fiscore*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을 나타내는 재정점수이다. *prevote*는 현직단체장의 지난 선거 득표율인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현직 단체장의 지지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age*는 단체장의 나이, *comp*는 경쟁후보자의 수이다. 가변수인 *party*는 정당공천여부, *carr*는 경력 가변수, *edu*는 학력 가변수, *local*은 지역 가변수이다. 그리고 ϵ 은 오차항을 나타낸다.

식 (1)을 추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다른 요인이 없다면, 이들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거나 복잡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대두된다. 종속변수인 득표율이나 재선여부는 현직단체장 중 재선에 출마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관찰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 대한 값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표본선택편의가 존재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흔히 두 가지가 사용된다. 하나는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이고, 다른 하나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추정이 용이한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표본선택 편의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식 (1)을 추정할 때, 다음과 같은 모형을 함께 추정하여야 한다.

$$P(E=1|X) = \Phi[\gamma_0 + \gamma_1 \text{prevote} + \gamma_2 \text{age} + \gamma_3 \text{party} + \gamma_3 \text{carr}] \quad (2)$$

2. 자료 및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거자료는 2002년과 2006년에 치러진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 단체장에 대한 투표결과이다.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점수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평가한 지방재정종합점수이다. 2002년에 선출된 단체장이 당선된 후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해왔는지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2004년의 자료를 사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30여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현직단체장으로서 2006년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모두 122명이다. 따라서 이들이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지방선거에 대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지방재정 종합점수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지방분석단체별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 수	관찰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재정점수 (fiscore)	122	673.26	551.30	610.12	2.32	609.58
2002년 득표율 (prevote)	122	100	11.3	49.57	1.40	51.1
2006년 득표율 (Vote)	122	100	24.2	53.20	1.42	51.95
나이 (age)	122	71.00	41.00	57.52	6.49	58.00
경쟁 후보자의 수 (comp)	122	7.00	1.00	3.47	1.19	3.00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중 가변수(dummy variable)를 제외한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주요 독립변수인 재정점수의 경우 최대값이 약 673점이고 최소값이 551점으로 나타났다. 재정점수는 1000점 만점으로 세입구조, 세출관리,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투명성, 국가정책 이행의 6가지 지표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것이다. 이 점수가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2년과 2006년의 단체장 선거 득표율의 평균은 약 50%로, 투표에 참여한 지역 주민의 반 정도의 지지를 얻으면 당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득표율이 최대값이 100%인 것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무투표당선된 경우이다. 평균 경쟁자 수는 3.5명이며, 재선거회를 노리는 단체장의 나이는 평균 57.5세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료를 바탕으로 식 (1)과 식 (2)를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으로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앞 소절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직 단체장 중 재선에 출마한 단체장만을 대상으로 추정을 하였으므로 표본선택 편향의 (sample 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표 4>의 하단부는 우리나라 전체 기초자치단체 232개에 대한 독립변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교정모형의 추정값을 보여준다.

<표 4> 회귀방정식 추정결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단체장의 득표율	재정점수	-0.0578** (0.0253)	-0.0576** (0.0251)	-0.0465* (0.0255)
	지난선거 득표율	-0.0201 (0.0357)	-0.0201 (0.0358)	-
	경쟁 후보자수	-3.8436*** (0.5660)	-3.9092*** (0.5278)	-4.3347*** (0.5274)
	나 이	-0.0979 (0.1161)	-0.1389 (0.1116)	-
	정당공천여부	0.0206*** (0.0047)	0.0207*** (0.0047)	0.0193*** (0.0048)
	대 졸	1.3273 (1.9517)	-	-
	대학원 졸	2.8379 (1.9218)	-	-
	공무원 경력	14.3575*** (2.0377)	16.0556*** (1.3967)	15.5353*** (1.3423)

정치인 경력	-2.0951 (2.006)	-	-
기업인 경력	-7.3831** (2.3957)	-6.2302** (2.006)	-
충청 지역	-4.9782** (2.1645)	-5.1771** (2.84081)	-8.3186** (1.4579)
전라 지역	0.3617 (1.9145)	-	-
경상 지역	0.6901 (1.6750)	0.5781 (1.4546)	-
λ	-7.2250*** (1.0551)	-7.3341*** (1.0417)	-7.4144*** (1.0474)
R-square	0.8884	0.8881	0.7990
Adjusted R-square	0.8883	0.8880	0.7989
N	122	122	122
재선 출마 여부			
지난선거 득표율	0.0114(0.0083)*	0.0114(0.0083)*	0.0114(0.0083)*
나 이	-0.0169(0.0177)	-0.0169(0.0177)	-0.0169(0.0177)
정당공천여부	5.9619(0.0436)	5.9619(0.0436)	5.9619(0.0436)
공무원경력	-0.0415(0.5310)	-0.0415(0.5310)	-0.0415(0.5310)
정치인경력	0.2208(0.5303)	0.2208(0.5303)	0.2208(0.5303)
기업인경력	1.3611(0.8519)	1.3611(0.8519)	1.3611(0.8519)
-2Log Likelihood	134.7306	134.7306	134.7306
N	232	232	232

주 :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임.

*, **, *** 는 각각 10%, 5%,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4>에서 모형 1은 단체장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앞에서 제시된 모든 변수를 포함시켜 회귀방정식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경쟁후보자의 수, 정당공천여부, 공무원 경력 그리고 표본선택편의를 교정하기 위하여 포함된 λ 변수의 추정계수가 0과 같다는 가설은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될 수 있다. 경쟁후보자의 수를 나타내는 변수의 계수추정치는 음이므로, 후보자가 많을수록 득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공천 여부와 공무원 경력 변수의 계수는 양으로 나타났다으므로, 이 역시 기대부호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경력변수 중

기업인 가변수와 충청지역 가변수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의 계수추정치는 음으로 나타났으므로, 기업인 경력을 가진 사람과 충청지역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에 비하여 적은 양의 득표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초점이 재정상태가 주민들의 투표행태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앞 소절에서 논의하였듯이,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는 이론적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 실증적 질문의 대상이 된다. <표 4>에서 보듯이, 이러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재정점수 변수의 계수추정치는 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수 추정치의 부호는 음으로 나타났으므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단체장이 더 적은 표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단체장이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결과의 의미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많이 소비한 단체장이 더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자치제가 실시된 후 지역행사나 축제가 많이 들어났다는 사실과 주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보여주기식 정책’에 따른 재정지출을 많이 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Brender(2003)의 분석결과도 비슷하다.

한편, 표본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함된 식 (2)를 추정한 결과는 <표 4>의 재선출마여부 열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재선출마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난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의 모형 2와 모형 3은 추정결과의 견고함(robustness)을 위하여 몇몇 독립변수들을 누락시켜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력, 정치인 경력, 전라지역 변수를 누락시킨 모형 2의 추정결과는 모형 1의 추정결과와 거의 흡사하다. 한편, 나이변수와 기업인 경력 그리고 경상지역 변수를 추가로 누락시킨 모형 3의 추정결과도 계수의 크기만 약간씩 달라졌을 뿐 모형1과 모형2의 추정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모형과 무관하게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재개라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

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지방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지방행정에 대한 의식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다른 행정부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투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단체장을 선출한다면, 주민들의 의사가 행정 및 재정운영에 반영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민들이 지역의 재정상태나 재정성과에 따라 단체장을 선출하는데 다른 선호를 보인다면, 이는 재정성과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투표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를 사용하여 재정상태와 현직단체장의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이들 사이에는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자치단체에 주어진 자율적 재정운영권한 안에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장 보다는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장이 더 인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자치단체장들이 다음번 선거를 의식하여 방만하고 느슨한 재정운영을 한다는 주장(박노욱, 2004)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자치단체장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의 첫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아직 패널(panel) 자료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더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상태와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가 좀 더 축적되면,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나 재정성과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에는 단체장 이외에 지방의회 의원들도 포함되므로, 이들에 대한 연구도 후속연구로서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한국지방행정연구소. (1998). 「자치행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지방분석 단체별보고서」.
- 한국지방재정학회. (1996. 11.). 「지방재정소식」. 제1호.
- 권오성. (2003). “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시 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59개 시 정부를 중심으로 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성태·김창은. (2003). “한국 지방재정운용평가분석:1985-2000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추계 학술대회”

- 박기백·김현아. (2005).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 재정운영에 대한 실증분석” 정책보고서 96-118, 한국조세연구원
- 박노욱. (2004). “지방선거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수입측면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42-56, 한국조세연구원
- 배인명. (1997). “지방재정상태의 측정을 위한 종합지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재정학보」, 2(1): 111~125.
- 안종석. (2001). “지방자치제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구조 변화분석” 정책보고서. 01-04 한국조세연구원.
- 원강안·구동용·환식식. (2006). 「지방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 이달곤 외. (2002).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지방행정의 발전전략: 3선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자치행정」, 176: 10-28.
- 이승중. (2005). 「지방자치론」, 서울 : 박영사
- 이재원. (2001). “지방재정과 지방선거” 경기논단, 경기개발연구원
- 이종수. (2000). “지방선거 투표율의 결정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준구. (2004). 「재정학」. 서울 : 다산출판사
- 임성일. (2006).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실태와 발전방향” 제288회 「정책&지식」 포럼자료집 2-27, 한국정책지식센터
- 최승범·이환범. (2006). “기초자치단체장 연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18(1).
- Bardhan, Parnab. (2002). “Decentralization of Governance and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6(4): 185-205.
- Berne, Robert and Gichard Schramm. (1986). “The Financial Solvency of Local Governments: A Conceptual Approach,” Unpublished Report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 Besley, Timothy & Coate, Stephen. (2001). “Elected versus Appointed Regulators: Theory and Evidence,” *NBER Working Paper* 7579.
- Brender, Adi. (2003). “The effect of fiscal performance on local government election results in Israel: 1989-1998,”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187-2205.
- Chubb, John E. (1998). “Institutions, the Economy, and the Dynamics of State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March) 133-154.
- Dean P, Foster & Rovert A, Stine. (2006). “Honest confidence intervals for the error variance on stepwise regression,”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31, 89-102.

- Dunleavy, P. (1980). *Urban Political Analysis*. Macmillan, London.
- Eichengreen, B. & Hegan, J. Von. (1996). "Federalism, fiscal restraints and European monetary un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6 (2), 781-787.
- G. Stigler. (1957). *The Tenable Range of Functions of Local Government, in Joint Economic Committee: US COngress, Federal Expenditure Policy for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7).
- Grove, Sanford M. (1980). "Evaluating Financial Condition: An Executive Overview for Local Government," Washington DC: ICMA.
- Happy, J. R. (1992). "The effect of Economic and Fiscal Performance on Incumbency Voting: The Canadian Cas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2, No.1, 117-130
- Harvey S. James, Jr. (2006). "Self-selection bias in Business Ethics Research," *Business Ethics Quarterly*, Vol. 16, Issue 4. 559-577.
- Hausmann, R. (1997). "Fiscal Institutions for Decentralizing Democracies: Which Way to Go?" Paper prepared for the 1997 IDB/OECD Development Center.
- Heitmueller, Axel. (2006). "Public-Private Sector Pay Differentials in a Devolved Scotland," *Journal of Applied Economics*. Vol 9, No. 2, 295-323.
- Ladd, Helen F. and John Yinger. (1989). "America's Ailing Cit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owry, Robert C. & Alt, James E. & Ferree, Karen E. (1998). "Fiscal Policy Outcomes and Electoral Accoutability in American Stat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2, No.4, 759-774
- Musgrave, R. A., Musgrave, P. B. (1980).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on Practice* (New York, McGraw-Hill, 1980).
- Prud'homme, R. (1995). "On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0(2) 201-220.
- Rosen, H. S. , Fullerton, D. J. (1977). "A note on local tax rate, public benefit levels, and property valu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5, No.2, 443-440.
- Wimmer, Bradley S. & Chezum, Brian. (2006). "Adverse Selection, Seller Effort, and Selection Bias,"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73.(1), 201-218.
- Yamagata, Takashi & Orme, Chris. (2005). "On Testing Sample Selection Bias Under The Multicollinearity Problem," *Econometric Review*, 24(4) 467-481.

Abstract

Financial Status and Voting Behavior in Local Government: Do Residents Respond to the Financial Status and Operations of Local Government?

Hyoungah Kim·Nayoung Kim·Sangheon Kim

There are two theories set up in opposition concerning the effect of the financial status of local government on the voting behavior of residents. There are the assertions that maintaining sound financial status or by making use of loose financial operations can positively affect voting behavior. This paper shows how the voting behavior of residents changes according to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by using positive material for providing the basis for opposition opinion.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based on analysis that financial status, operations, and percentage share of the vote for the incumbent head of local government by using lower local government resources. This means that the local government head that inefficiently operates local finance is more popular than the one who does so efficiently. This result supports the assertion that local government heads operate loose finances thinking of the next election.

【Key words: Financial Performance, Financial Status, Local election, Percent of the vote of the local government head】